



NH농협은행, NH디지털혁신캠퍼스 챌린지 해커톤 성료
NH농협은행은 서울 서초구NH디지털혁신 캠퍼스에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NH디지털혁신캠퍼스 챌린지 해커톤'을 성황리에 마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롯데백화점, 미혼모 돕는 '리조이스 박스' 제작 봉사활동
롯데백화점은 9일 본점 교육장에서 미혼모를 위한 '리조이스 박스'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 임직원 40여 명이 만든 리조이스 박스에는 기저귀, 물티슈, 분유 등 미혼모에게 필요한 물건이 담겼다. 해당 박스들은 '기아대책'과 '한국 미혼모 가족 협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들에게 전달 된다. /롯데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창립 74주년 기념 임직원 나눔 캠페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6일 창립 74주년을 맞이해 국내외 임직원 700여 명과 함께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8개 해외 법인 임직원들이 동참했다. 이날 본사와 지역사업부는 '미스터리 나눔버스'를 타고 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아모레퍼시픽



한우자조금, 한우 직거래 장터 열어
한우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배우 남궁민 등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19년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무찬 한우자조금 대표의원장, 모델,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 남궁민,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손진영 기자 son@



BMW코리아 미래재단, 엔지니어 꿈나무 희망 키워
BMW그룹 코리아의 비영리 재단법인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독일 뮌헨에서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 6기' 학생들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학생들은 단계별 학습과 꾸준한 멘토링을 거치며 구체화한 진로 로드맵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6기 참가 학생 총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BMW그룹코리아

祖國이 曹國을 버릴것인가? 살릴것인가?



이상현의 칼럼

참 황당하고 자괴감마저 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떠돌고 있는 많은 글 중에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문구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비애를 대변하고 있다. 많은 시간 동안 국민들은 '공정', '규범', '준법' 등 꼭 지켜야 하는 필수적 요건과 상황을 교육했고 받아왔다. 그러한 기본적인 법규와 신뢰를 통해 자율적 경쟁과 그 경쟁을 통한 나열적 순위를 인정해왔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 중 일 반적으로 고려되는 큰 사회적 가치는 '좋은대학'이라는 간판이 가지는 미래적 담보를 누구나 원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고3 수험생 들은 100일도 남지않은 수능시험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바로 '좋은대학'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필자도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다. 다행히 녀석들이 별문제 없이, 도움 없이 대학에 들어가 준 것이 감사하

는 그저 평범한 부모다. 표현을 못 했지만 감사하고 있다. 아마도 어느 부모라도 가지고 있는 능력과 관계성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게다. 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공정해야한다는 법치적 사고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 있는 자리가 법무부장관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국민은 더욱 공정한 잣대를 요구한다. '오비이락(鳥飛隼落)'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이번 청문회에 대한 필자의 소회다. 사회적 통념에서의 법무부장관은 공정과 공평의 평균적 잣대를 실천해 왔고 실천할 사람을 국민들은 원한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은 평소의 조국 교수가 해왔던 행보의 괴리적 결과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한다. 부인과 딸, 조카 등 주변 인물들이 문제지 당사자인 조국교수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으나,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청렴과 도덕적 기준에는 가족은 물론 주변에 대한 공정한 삶의 기준을 가진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에 대한 욕구가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문회 형태에 대한 개선과 변화도 필요하다. 당사자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실행적 정책방향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저 흠결과 치부, 악의적 내용에 대한 고발이 청문회장이면 그 어느 고명한 인사라도 그 자리에 앉기가 두려울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거의 모든 고위 공직자 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찢고, 할퀴고, 물어뜯고, 폭로하는 이수라장이었다. 이제는 그 괴로움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정말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인재라면 꼭 필요한 검증 절차만으로 책무를 다하게 하는 인사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청문회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저 하이어나와 같은 권모술수와 각 정당의 이해득실만을 위한 청문회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이변과 같이 송두리째 까발려 만신창이로 만들어 그들은 무엇을 얻었으며, 그 가정은 어떻게 추수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어느 영화 주인공의 대사가 오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청렴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금호석화, 가을맞이 요양시설 창호교체 지원

포천 생수의 집 찾아 임직원 봉사 68개소 창호, 휴그린 창호로 교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지난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포천시 소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생수의집을 찾아 창호 전달식 및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생수의집 시설 생활관 4개 층 및 배란다 출입문을 포함한 68개소 창호를 금호석유화학 휴그린 창호로 교체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각 창문의 규격과 구조에 맞는 휴그린 이중창을 새로 설치해 외기 차단 효율을 높이고 여름철 장마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과 신수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허근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등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생수의집을 찾아 창호 전달식 및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참석했다. 함께 시설을 찾은 20여명의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은 행사 전후로 시설 거주인 돌봄 및 환경미화 활동을 펼쳤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시설 거주인과 함께 윷놀이·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겼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08년부터

터 매년 서울시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추천을 받아 복지시설의 창호를 교체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창호교체사업 외에도 맞춤형 휠체어제작지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제작지원 등 화학 제품으로 소외계층의 장애를 개선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정보보호산업과장 정은수
- ◆방위사업청 ◇과장급 신규임용 △정보화기획담당관 광희섭
- ◆영동군 ◇4급 △행정복지국장 서완석 △농산업건설국장 김기열 ◇5급 △기획감사담당관 나채정 △행정과장 신승철 △민원과장 백성학 △환경과장 이희자 △보건소장 직무대리 오준용 ◇6급 △용화면 부면장 임기철 △기획감사관 김병연 △주민복지과 김미애 △주민복지과 김명희 △민원과장 손옥상 △민원과장 송상현 △경제과장 손완수 △농정과 김영목 △환경과장 정성현 △산림과 안치문 △산

림과 이덕표 △건설교통과 정경순 △매곡면 향현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정책본부장 신현욱 △총무국장 김동진 △연수운영국장 김효섭 △정책교섭국장 장승혁 △교원복지본부장 김동식 △조직강화국장 이서구 △회원사업국장 김영춘 △교원복지국장 정해숙 △교원연구국장 이호중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박충서 △편집국장 이낙진
- ◆메트라이프생명 ◇상무 선임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전원태
- ◆아주경제 △경제부장(부국장) 김병수
- ◆아시아투데이 ◇승진 △편집국 정치부 부장대우 이석중 ◇전보 △편집국 뉴미디어부 부장직무대리 겸 온라인뉴스팀장 성희제

부음

- ▲조무자 씨 별세, 임규동(경상일보 디지털미디어국장) 씨 장모상 = 9일, 부산영락공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 052-220-0515
- ▲김혜동(전 외환은행 지점장) 씨 별세, 김성은(삼성전자 상무)·김재은(드라마 작가) 씨 부친상, 천승희(중앙회계사무소 대표) 씨 장인상, 하승희(동아일보 편집부 차장) 씨 시부상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 031-787-1503
- ▲유형간 씨 별세, 윤종민(행정안전부 차관) 씨 장모상 = 9일 오전 8시, 서울 중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11일 오전 5시 ☎ 02-2072-2010